



COSATU 제7차 전국총회

홍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hong@klsi.org

COSATU(남아프리카노동조합회의, 이하 코사투) 제7차 전국총회가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 동안 열렸다. 이번 총회는 제6차 전국총회가 열린 1997년 이후 3년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자리였다. 집권여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가 추진해온 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노동조합 진영의 반발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총회에는 타보 음베키 대통령이 참석하여 연설했다. 대통령의 참석은 코사투와 ANC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음베키 대통령은 총회 첫날 연설을 통해 "반혁명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코사투-ANC의 동맹관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남아프리카는 1994년 총선거에서 코사투-공산당(SACP)과 3자동맹을 형성한 ANC가 승리함으로써 최초의 민주정부가 출범한 이래 1999년 6월 선거에서 3자동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ANC가 2/3를 넘게 득표함으로써 민주정부 2

기를 맞이하고 있다). 총회에는 음베키 대통령말고도 국제자유노련(ICFTU) 사무총장 빌 조던, 미국노총(AFL-CIO) 부위원장 윌리엄 루시, 공산당 사무총장 블레이크 은지만데가 축하연설을 했다.

전통적으로 코사투는 전국총회(우리에 견주자면 대의원대회)를 꼼꼼하게 준비한다. 코사투의 준비성은 토론문과 사업보고서의 사전 배포에서 두드러진다. 이번 총회의 경우에도 관련 자료는 5월 말까지 완성하여 배포되었으며,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참석 대의원은 물론 일반 조합원들도 공유할 수 있었다. 이번 총회에는 7가지가 넘는 문건이 배포되었는데 「세계화 시대에 사회변화를 앞당기자」라는 제목의 토론문은 총회에서 다뤄질 주요 안건과 결의사항을 담고 있으며, 이를 받은 총회 참가 대의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조합원과 논의해야 한다. 『사업보고서』는 '정치분야 보고서', '조직분야 보고서', '국제분야 보고서', '사회경제분야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말고도

「코사투 여성정책」,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계획」, 「비공식부문 및 비정규직 조직 방안」 등의 문서가 총회에 제출되었다. 또한 총회 자료들을 요약하여 기관지인 「현장위원 The Shopsteward」에 미리 실기도 했다. 또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총회운영을 목적으로 회기일정 전부가 TV에 생방송되었다.

남아프리카의 현재 상황

총회에 제출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코사투는 남아프리카의 현재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1994년이래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튼튼해졌지만, 집권여당인 ANC는 행정부, 즉 정부부처와 관료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1996년부터 우경화했다(정부의 보수적인 경제정책인 GEAR는 노동자를 위한 성장, 고용, 재분배를 약화시켰다. GEAR 정책이 시행된 이후 예산적자와 관세는 줄어든 반면 금리는 올랐고 민간부문 투자는 크게 줄었으며, 공식부문에서만 1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실업률은 40%에 육박하며, 아직도 사회 곳곳에 인종차별정책의 잔재가 남아 있다. 거대자본의 경제 지배가 여전하며, 부의 불평등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 광업, 농업, 제조업, 공공부문에서 수십 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흑인과 백인간의 소득격차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흑인 내부의 소득격차는 커지고 있다. 빈곤과

실업은 흑인, 여성, 청소년, 그리고 농촌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또한 「민족민주혁명」의 방향을 둘러싸고 민주세력과 반동세력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계급모순이 주요 모순으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많은 성과와 혜택도 있었다. 수백만 명이 전기와 수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일반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도 개선되었다. 하지만, 민주화 7년째를 맞이한 지금까지 개선 정도는 크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 코사투의 입장이다.

총회 쟁점들

이번 총회에서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문제는 코사투-ANC-공산당 3자동맹에 관한 사안이었다. 3자동맹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점차 약화됨으로써 조직 내부에서 3자동맹, 특히 ANC와의 동맹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어왔다. 동맹 참여 세력간의 관계가 불평등하며, ANC가 코사투와 공산당을 제치고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사투 내부에서 3자동맹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있다. 「사업보고서」는 1997년과 1998년 열렸던 3자동맹 수뇌부 회담이 1999년과 2000년에는 열리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ANC 정부가 3자동맹 당사자의 참여 없이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7년 제6차 전국총회는 “3자동맹이 남아프리카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유력한 수단이어야 하며, 3자동맹을 재조직

해야 한다"고 결의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 3자동맹은 자기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동맹 내부의 긴장이 커지고 있는 형편이다. 여기에 국제환경 역시 더욱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남아프리카의 민주정부가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사회주의로의 전진"을 위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좁혀놓았다

하지만 이번 총회에서도 코사투는 ANC와 3자동맹에 대한 변함 없는 지지를 결의했다. 코사투 위원장 윌리 마디샤는 총회 연설을 통해 "민족민주혁명을 밀고 나가는데 ANC는 노동계급이 필요하고, 노동계급은 ANC가 필요하다"고 ANC와의 관계를 설명했다. 또한 그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 공산당은 노동계급이 필요하고, 노동계급은 공산당이 필요하다"고 코사투와 공산당과의 관계를 요약했다. 민족민주혁명을 밀고 나가야 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노동자가 코사투이자 ANC이자 SACP"인 것이다. 반동세력과 자본가계급이 민족민주혁명에 도전하는 지금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을 위해 3자동맹은 유지·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자동맹의 약화와 더불어 노사정 합의 기구인 전국경제개발노동위원회(NED-LAC)의 기능과 역할도 우려곡절을 겪고 있다. ANC 정부가 NEDLAC을 통한 "사회적 합의주의"에 점차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NEDLAC 산하 노

동시장소위원회가 '근로기준법'(BCEA), '고용평등법', '숙련향상법', '성희롱방지법' 등의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정부의 소극성으로 금융·산업 정책을 다루는 공공재정산업소위원회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재무부는 이 소위원회를 핵심정책에 대한 협상의 장이 아닌 정보공유의 장으로 격하시키기를 바란다. 하지만, 『사업보고서』는 여전히 NEDLAC을 정책참여의 핵심 기구로 규정하였고, 전국총회는 NEDLAC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결의했다.

1999년 이후 NEDLAC 말고도 전국차원의 기구로 '대통령·노조 실무위원회'(the Presidential Trade Union Working Group)와 '밀레니엄 노동위원회'(the Millennium Labour Council)가 만들어졌다. 타보 음베키 대통령의 제안으로 1999년 만들어진 '대통령·노조 실무위원회'는 대통령과 노동운동 지도부 일부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정 양자 기구지만, NEDLAC과 같은 법률적 지위를 갖지는 않는다. 코사투 내부에는 실무위원회를 정책참가 기회로 보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이들이 노동운동이 정부의 의도에 흡수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2000년 7월 7일 출범한 밀레니엄노동위원회(MLC)는 노-사 양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역시 공식 기구는 아니다. 대표적인 사용자들이 참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용자단체가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MLC

가 노사정 3자기구인 NEDLAC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조직 상황

1997년 6차 전국총회 이후 조직 내부의 변화로는 우선 지도부 교체를 들 수 있다. 1999년 6월 총선에서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회계감사, 사무총장이 국회의원이 되거나 지방정부의 책임자로 정계로 진출함으로써 지도부 공백을 메우기 위해 1999년 8월 특별총회가 열렸으며, 위원장(윌리 마디사)과 사무총장(즈웰린지마 바비)을 비롯한 중앙임원을 새로 선출했다. 한편, 코사투 중앙의 상근자는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모두 60명이며, 전체 재정에서 의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83%, 1998년 92%, 1999년 85%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1997년 17개였던 코사투 가맹조직수는 20개로 늘었다. SASAWU(국가공무원일반노조), SADNU(민주간호사노조), RAPWU(소매농산물가공노조), PAWE(행위예술인노조), SAFPU가 새 가맹조직이 되었다. 그리고 CWIU(화학노조)와 PPWAWU(제지인쇄목재노조)가 통합하여 CEPPWAWU(화학에너지제지인쇄목재연합노조)가 출범했으며,

TGWU(운수일반노조)와 SARHWU/SATAWU(철도항만노조)가 통합하여 SATAWU(운수연합노조)가 출범했다. 그리고 조합원수와 관련해서는 1991년부터 97년까지 50만명이 늘어난 데 반해, 97년 이후부터는 4만명 증가하는데 그쳐 급격한 조직 성장세는 멈췄다. 그리고 조합원수 증감과 관련하여 가맹조직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공공부문(SADTU, NEHAWU 등)은 조합원수가 늘고 있는데 반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왔던 제조업/광업(NUMSA, NUM 등)에서는 점차 조합원수가 줄고 있다(표 참조).

조직전략과 관련하여 코사투는 전투적 동원전략과 동시에 정책참가를 통한 협상전략을 병행해왔다. 정책참가를 통한 협상전략이 1994년 민주정부 출범 이후의 기조였다면, 1999년 6월의 총선거 전후로는 점차 동원전략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5월 10일 코사투는 조합원수의 두배가 넘는 4백만명의 노동자가 참여한 하루 총파업을 조직했다. 코사투는 '정리해고시 노조와의 교섭 의무화', '파산법 개정을 통한 고용안정책 마련', '공공부문의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관세의 급격한 인하 철회'를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조직원칙에 대해 코사투는 노동자통제·조직민주주의·공개토론·전전한

1) △ 임원실: 5명(사무총장, 사무차장, 비서 3명), △ 총무국: 4명, △ 교육국: 3명, △ 조직국: 2명, △ 정책조정국: 5명, △ 의회사무소: 5명(AFL-CIO 파견 인턴 1명 포함), △ 국제국: 2명, △ 홍보국: 3명, △ 정보통신국: 4명, △ 회계국: 4명, △ 지역본부: 23명(본부장 포함)

[표] 1991-2000 코사투 가맹조직 조합원수 및 코사투 내 비중

가맹조직	1991	1994	1997	2000	코사투 내 비중 2000년
광원노조(NUM)	269,622	310,596	310,596	290,070	16%
교육보건연합노조(NEHAWU)	18,110	63,835	162,530	234,607	13%
민주교사노조(SADTU)	-	59,427	146,000	218,747	12%
금속노조(NUMSA)	273,241	169,598	220,000	200,000	11%
의류섬유노조(SACTWU)	185,740	150,078	150,000	119,930	7%
지자체노조(SAMWU)	60,304	100,406	116,524	119,792	7%
식품연합노조(FAWU)	129,480	121,435	139,810	119,302	7%
운수연합노조(SATAWU)	-	-	-	103,218	6%
상업요식업연합노조(SACCAWU)	96,628	102,234	102,234	102,234	6%
화학연합노조(CEPPAWU)	-	-	-	73,720	4%
경찰교정직노조(POPCRU)	-	-	44,999	70,618	4%
금융노조(SASBO)	-	-	70,377	63,046	3%
통신노조(CWU)	-	-	70,377	63,046	3%
농장연합노조(SAAPAWU)	-	-	29,000	22,163	1%
국가공무원노조(SASAWU)	-	-	-	18,000	1%
민주간호사노조(SADNU)	-	-	-	8,128	0%
소매업농산물처리공노조(RAPWU)	-	-	-	3,500	0%
행위예술인노조(PAWE)	-	-	-	2,571	0%
건설연합노조(CAWU)	30,123	25,461	31,606	-	-
화학산업노조(CWIU)	45,147	41,462	45,000	-	-
제지인쇄목재연합노조(PPWAWU)	42,962	36,630	49,422	-	-
가정부노조(SADWU)	16,462	25,149	-	-	-
공무원노조(SAPSAWU)	-	-	14,318	-	-
철도항만노조(SARHWU)	-	36,243	35,398	37,150	-
운수일반노조(T & GWU)	33,324	38,482	53,989	-	-
SAFPU	-	-	-	400	0%
합 계	1,258,853	1,303,272	1,763,555	1,805,054	100%

출처: 코사투, 『사업보고서』, 2000

비판·동지에·헌신성을 지향하며, 개인 승배·출세주의·조합원의 이익을 무시하는 행위를 배격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조직 안에 내부알력, 비생산적인 비판, 분과행위, 뒤통수 치기가 코사투의 에너지를 낭비한다고 코사투는 지적한다. 여기서 현장과 지도부간 괴리도 심각

하다. 『사업보고서』는 선거에서 뽑힌 상근 임원과 역시 선거에서 뽑힌 반상근/비상근 노동자간부 사이에 간극이 커지고 있으며, 상근임원이 노조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노동자통제의 약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전과 과제

코사투는 현재 직면한 도전으로 '노동력의 비정규화 및 비공식화', '각종 정책을 둘러싼 ANC 정부와의 불화', '제조업의 축소와 서비스업의 증가 등 경제구조의 변화', '노동운동 내부의 출세주의와 기회주의의 위협'을 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 '비정규직과 비공식부문의 노조조직화 확대', '정책참가 강화', '조직 역량 및 토대 강화', '조합원 서비스 및 내부 민주주의 강화', '공산당 및 ANC 구조 안에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에 '경제정책의 일방적인 강요 중단', '일자리 유지와 창출을 최우선 의제로 할 것', '부의 재분배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경제발전 전략과 관련하여 정부의 경제전략인 '성장·고용·재분배 정책'(GEAR)을 더 이상 추진하지 말고, 원래 3자동맹 안에서 합의했던 '재건 개발계획'(RDP)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법 개정을 통한 정리해고 억제', '파산법 개정을 통한 실업 최소화', '공급중심 경제정책의 중단', '주 40 노동시간 실시', 'Buy South Africa 캠페인지지', '실업자와 국민자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새 밀레니엄의 출발점에서 코사투가 처한 상황은 녹록치 않다. 남아프리카 안팎의 상황을 염두에 둘 때 민족민주혁명(NDR)의 강화를 통한 '사회주의'

로의 전진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총회 역시 3자동맹 강화와 ANC 및 공산당에 대한 지지를 결의했지만 3자동맹의 결속도가 나아질 조짐은 없다. ANC 정부의 "우경화"는 더 분명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범죄의 범람과 에이즈의 확산 같은 '사회 도덕'과 '시민 규율'의 붕괴가 일반 조합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실정이다(코사투 2000년 신년사의 마지막 메시지는 '콘돔을 사용하지'였다). 그리고 조직노동자와 실업자·빈민간의 분열상에 따른 '노동계급 내부의 모순'도 커지고 있다.

이번 총회는 3자동맹에 대한 내부 분열을 통합하고,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사회주의로의 전진"을 위한 조직적 과제를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였다. 하지만, 코사투가 안고 있는 문제는 만만해 보이지 않는다. 다음 총회가 열릴 때까지 코사투가 도전들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큰 흐름에서 코사투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는 한국 노조운동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신자유주의', '정리해고', '구조조정', '민영화' 등은 똑같은 도전들이며, 조직 내부의 혼란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다. 코사투의 향후 행보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과 동시에 공동 도전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